

# 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숙박 할인, 고속도 통행료 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농수축산물 670억 규모 할인지원”**  
“하반기 정책 ‘민생안전’ 최우선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뛰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휴 기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제인 추석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의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라”고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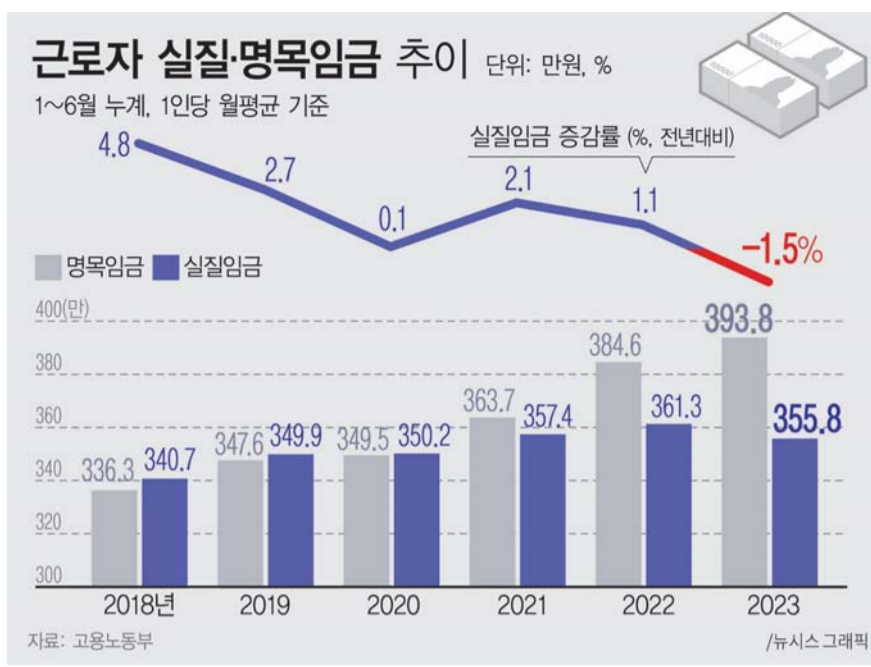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실질임금 5분기 꺾 감소 15개월간 53만원 줄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의 임금과 달리,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직장인들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월 기준 실질임금은 올해 6월 336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줄었다.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치를 보면 단 한 번(올해 2월·0.7% 증가) 제외하고 14개월분이 줄어들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올해 2분기에 371만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3.7%, 5월에 3.3%, 6월에 2.7%를 나타냈다. 산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분기에 월평균 3.2% 수준인 데 반해 명목임금 증가 폭은 이보다 0.3%포인트(p) 작았던 셈이다.

**고용부, 지난달 사업체노동력조사 2분기 근로자 실질월급 334만원**

**명목임금 371만원 전년비 2.9% ↑ 물가 3.2% 오를때 0.3%p 상승 그쳐**

실질임금은 지난해 1분기 387만 원(3.2% ↑)에 달한 뒤 2분기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년3개월가량의 기간에 무려 53만 원(-13.7%) 쪼그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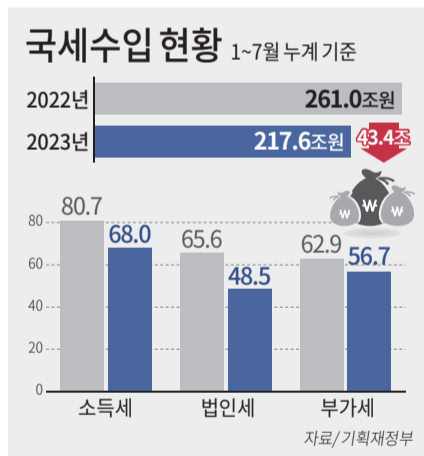
작년 2분기에 2021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35만 원을 비롯해 3분기 358만 원(-1.7%), 4분기 355만 원(-1.1%) 등이다. 올해 1분기에 큰 폭(-2.7%)으로 줄어든 377만 원을 기록했고 2분기까지 내림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은 2년 전인 2021년 2분기 값(339만 원)보다도 적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올 국세수입 217.5조, 전년비 43조 ↓ ‘세수결손 심화’

기재부,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 수입대비 진도율 54.3% 머물러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

(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견혀 15.8%(12조 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 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새마을금고, 상반기 순손실 1236억

“예금이자비용·대출연체 늘어 총당금 적립비용 증가한 탓”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23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가 1236억원 규

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대출 연체발생에 따른 총당금 적립비용이 증가해 손익이 감소했다”며 “하반기 연체율관리 강화 등을 통해 흑자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19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1000억원(-

2.5%)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85조1000억원으로 같은기간 5조9000억원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은 8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3.29%)과 비교해 1.82%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같은기간 2.73%p 늘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0.42%p 올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다만 그만큼 자본적 정성이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2개 대어 흥행 실패면 시장에 악재”

“1면 ‘하반기 兆단위 대어급’서 계속

시장에서는 하반기 IPO 시장의 흥행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상반기까지의 주관 실적은 중소형사 IPO 위주로 이어지면서 큰 격차가 없었지만 하반기에는 대형 IPO 한 번의 흥행으로도 순위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큰 IPO가 없었던 만큼 하반기에 시장이

커지면서 활성화되면 실적 변동이 생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상반기에는 장이 어려웠던 만큼 상장 기업 자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시장 흐름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가 유지돼서 IPO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실적 변동 여지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